

# 네 시간을 사랑하여라



안 병 옥  
(숭실대 명예교수)

**우리** 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태도로 3백65일을 살 것이냐. 우리 모두 가슴속에 간절한 기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전력투구(全力投球)의 정신으로 열심히 살자.

세계에서 가장 지혜를 사랑하고 존중한 국민은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일찍부터 지혜문학(智慧文學)을 발전시켰다. 탈무드는 유대인의 지혜의 집대성이요, 인생의 교과서요, 생활의 지침서다. 탈무드란 말은 연구란 뜻이다. 지금부터 1천 2백여년 전에 만들어진 63권의 이 방대한 책은 슬기의 보고(寶庫)요, 진리의 사전이다.

이 책에는 지혜가 금은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난다. 나는 서두의 말을 지극히 좋아한다. 평범한 말이지만 깊은 진리를 내포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앞에 있는 것은 오직 현재라는 시간뿐이다. 내가 소유하는 유일한 시간, 내가 쓸 수 있는 단 하나의 시간은 오직 현재 뿐이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 갈 뿐이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지사(過去之事)에 연연(戀戀) 애착을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너무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 그것이 현재다. 우리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한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말년의 명작 중에 「세 가지의 물음」이란 단편이 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 인생의 세

“

**오늘이 나의 최초의 날인 동시에  
최후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최대의 정열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

가지의 중요한 물음이다.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현재라고 했다.

그렇다.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 내가 지금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언제 나의 최후의 날이 올는지 아무도 모른다. 미래는 안개 속에 가려 있다. 언제 죽음의 신(神)이 나의 생명의 문을 노크할는지 모른다. 우리는 오늘을 나의 최후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정성과 정열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야 한다.

우리는 오늘을 나의 최초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 오늘이 나의 최초의 날인 동시에 최후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최대의 정열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인생은 짧다. 세월은 손살같이 달린다. 의학의 발달과 영양의 풍족으로 평균 연령이 70세에 육박하게 되었다. 옛 시인이 말한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는 현대인에게는 이제 맞지 않는다.

인생 70을 산다면 날짜로 약 2만5천 날이요, 시간으로는 약 60만 시간이다. 겨우 2만5천 날 사는 인생이요, 60만 시간을 살고 가는 인생이다.

우리는 생명의 열애자(熱愛者)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시간의 열애자가 되어야 한다. 자기의 생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의 시간을 사랑한다. 나의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다.

인생은 시간으로 구성된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일생이 된다.

우리가 죽을 때에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겨 놓고 갑니까? 인생은 예술이요, 생활은 작품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저마다 무엇인가 남겨 놓는 것이다.

위인은 위대한 유산을 남기고 범인은 평범한 유산을 남긴다. 유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물질적 유산도 있고 정신적 유산도 있다. 정신적 유산도 다채다양하다. 문학·예술·학문·

사업·인격·종교 모두 다 정신적 유산이다.

사람은 무엇인가 남겨 놓고 가야 한다. 나의 존재의 흔적을 역사 위에 남겨 놓고 가자. 손톱자국, 발톱자국이라도 좋다. 내가 이 세상에 왔던 자취와 기념탑을 남겨 놓고 가야 한다. 아무 것도 남겨 놓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인생은 결코 공수래 공수거(空手來空手去)가 아니다.

올 때는 빈 손으로 왔지만 갈 때에는 무엇인가 보람있는 것을 남겨 놓고 가야 한다.

나는 한국 땅에 태어나서 6·70년 살다가면서 과연 무엇을 남겨 놓고 가야 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문제 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사명감(使命感)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라는 명언이 있다. 인간이 사명감을 가질 때 그는 시간을 아껴 쓰고, 계획적인 생활을 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하고, 모든 노력을 사명의 완수에 경주한다.

십 리 길을 가는 자와 백 리 길을 가는 자는 첫 걸음부터 다르다. 십 리 길을 가는 자의 발걸음에는 강한 결심과 힘찬 의지가 있다. 그러나 백 리 길을 가는 자의 걸음걸이에는 굳센 결심과 늠름한 기백이 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사명과의 만남이다. 나의 생명을 여기에 바치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 쓰겠다는 확고한 자각과 결심을 품을 때, 우리의 눈동자가 달라지고, 마음 가짐이 달라지고 생활 태도가 달라진다. 나의 생명이 나의 사명과 만나야 한다. 나의 생명이 나의 사명을 찾지 못할 때, 나의 생활은 안일과 타성과 무기력에 빠지기 쉽다.

죽은 물고기는 더러운 탁류에 힘없이 떠내려 가지만, 살아 있는 물고기는 맑은 샘물을 찾아 탁류를 힘차게 거슬러 올라간다. 아무 사명도 이상도 목표도 없는 사람은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사회의 탁류에 힘없이 떠내려 가기 쉽다. 우리는 살아 있는 물고기처럼 생기 발랄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후회없는 인생을 살자. 보람있는 인생을 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준 이 귀한 생애를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준 이 존엄한 생명을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반복이 없는 이 유일성(唯一性)의 목숨을 우리는 정성껏 살아야 한다. 오늘을 내 인생의 최초의 날이라고 생각하여라. 오늘을 내 인생의 최후의 날이라고 생각하여라. 그리고 현재라는 이 유일한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승리의 인생을 사는 비결이다.\*